



www.at.or.kr

농식품 소매가격조사

4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4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일본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민속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스낵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스낵류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6. 소스류 (장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장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일본 연화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4월 25일자 기준으로 작성, 1엔 = 10.2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1~4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일본



1. 김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



3. 면류 (라면)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



4. 주류 (민속주)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1)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



5. 제과류 (스낵류)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1) 원산지 별 스낵류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



6. 소스류 (장류)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1) 원산지 별 장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



김

수요 상승 ▲ “ 휴대가 간편한 도시락 반찬으로 인기 좋은 한국 도시락 김 ”

한국식품과 주류를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고 있는 KOA의 담당자 Mr. Gyon (化ギョン)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김의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해당사는 연초에 비해 조미 김의 판매량이 약 2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학과 동시에 도시락 반찬으로 인기가 좋은 도시락 김의 수요가 늘면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포장 단위의 도시락 김은 간편하게 휴대하기 좋아 일본 식문화에 적합하여 인기가 좋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비하여 가격은 다소 안정되었으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 편차 외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도시락 김]

주류

수요 하락 ▼ “ 한류드라마 효과를 톡톡히 봤었던 한국산 전통주 ”

한국 전통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Uritrade Co.,Ltd의 담당자 신경준님에 따르면, 해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 소주, 막걸리, 복분자주 등 전통 주류의 판매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한국드라마의 PPL상품에 관심이 높아, 드라마에서 먹는 제품이 판매량에 영향을 다수 끼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한국 주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어 광고효과가 나지 않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류 외에 유자차는 여전히 판매율이 좋으며, 홍보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계절성 제품이라, 금년도 1월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산 주류]

신선식품

수요 상승 ▲ “ 저렴한 중국 건조 표고버섯에 밀리는 한국 표고버섯 ”

신선 및 건조 버섯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Oomichi Trading의 담당자를 인터뷰한 결과, 중국산 건조버섯이 국내산보다 저렴하여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해당사는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특히 건조된 제품을 찾는 고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고객들은 다양한 형태를 선호하여 건조버섯을 규격 별, 형태별로 구비하고 있으며, 규격과 형태 별로 특별히 수요가 높은 제품은 없고, 특성과 활용도에 따라 꾸준한 판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건조 표고버섯은 취급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있어 일본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조 표고버섯]

제과류

수요 상승 ▲ “ 벚꽃 시즌 맞아 견과류 파우치 불티나게 팔려”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MIYATA의 수입부 담당자 Mr. Kurita에 따르면, 미국산 견과류 파우치 제품의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4월 벚꽃 시즌이 되면, 국내 나들이객이 많아지면서, 야외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류의 판매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견과류의 판매량이 높은 이유는 야외에서 벚꽃을 감상하며 맥주와 함께 곁들일 간식을 찾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사는 한국산 과자도 수입 및 유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명 대기업의 감자칩 과자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편이며, 가격 및 판매량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견과류]

가격 상승 ▲ “ 한국-일본간 운임료 상승으로 한국산 캔디가격 소폭상승 ”

1947년 설립되어 제과류를 도매로 유통하는 주식회사 하세(ハセガワ)의 구매부 담당자 Mr. Hashimoto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 사탕의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간의 운임료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사는 한국산 캔디를 소량으로 주문하고 있지만, 운임료가 비싸져 마진이 남지 않아 더 이상 소량으로는 구매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격이 저렴한 캔디류를 선호하며, 특히 한국산 사탕에는 관세가 25%가 붙기 때문에 본래 도매 가격보다는 더 저렴하게 제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사탕]